

저는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건강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큰 이유는 담배연기와 옷이나 머리에 배는 담배 냄새가 싫기 때문입니다.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위 사람이 담배를 피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제 앞에서는 피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함께 있는 사람이 담배를 피면, 피지도 않았는데 담배 냄새가 배어 불쾌해지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다른사람에게 담배를 피워도 좋다 라든지 피워서 안된다라고 말할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담배는 피는 본인 보다, 주변 사람에게 훨씬 나쁘다고 합니다.

피는 사람만의 문제라면 특별히 뭐라고 말할수 없지만,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논의 되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저에게 누군가가 "커피는 몸에 나쁘니까 마시지마"라고 말해도 계속 마실 것입니다. 담배도 기호품이기 때문에 담배를 피는 사람도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피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든지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피는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장소중에서도 가장 피워서 안될 곳은 공중전화박스입니다. 담배냄새가 났 수화기는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주변의 버려진 담배꽂초도 신경쓰입니다.

이런 문제는 담배를 피는 사람이 조금만 신경을 써준다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담배를 계속해서 피우기 위해서 주위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